

시각적 자료와 미술활동을 통한 초보 바이올린 지도 연구*

조 원 경** · 현 천 사***

본 연구는 초보 바이올린 학습자가 바른 기초를 익히고 그룹 레슨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효율성을 높이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각적 자료와 미술활동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평소 바이올린 초보자들을 지도할 때 경험했던 한계를 시각적 요인으로 더욱 친숙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자 고안한 아이디어와 아동미술교육 서적을 참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서경류직스쿨**** 강사들과 연구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자료와 미술활동을 도입한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교육을 진행한 지도강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효과를 분석 및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미술 활동이후에 학생들의 창의성과 미술성이 발휘되는 것을 교사가 발견하여 음악 외 잠재되어 있는 학생들의 예술성에 대한 격려를 불렀고, 이는 학생들에게 악기에 대한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미술활동 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실기능력 또한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초보 바이올린 학습자에게 청각을 주로 사용하는 음악교육에 시각을 사용하는 도구와 미술활동을 접목하는 통합교육의 시행으로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그룹 레슨이 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악기 수업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주제어: 초보 바이올린, 초보 비올라, 미술, 초등 바이올린, 통합교육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한계점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2. 연구대상
3. 연구절차

III. 시각적 도구 활용

1. 벨크로 테이프(보슬이), 컬러 테이프, 스티커 활용
2. 펠트지를 이용한 바이올린 모형 만들기

IV. 미술 활동 내용 및 악기 수업 적용

1. 연구 동기 및 방법
2. 음정 패턴 익히기
3. 휴지심을 이용한 활 자세 교정기 만들기
4. 중간활 바르게 쓰는 보조 도구 만들기 - 팔토시
5.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를 통해 바이올린 콜라주 만들기

V.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부교수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강사(교신저자)

**** 음악교육전문 (예비)사회적기업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대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문화 수준이 날로 향상되면서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현악 교육이 학교, 학원, 가정에 많이 보급되었다(김소영, 2004, p. 2). 특히, 바이올린 교육은 1990년대 후반기부터 각 학교에서 1인 1악기 운동, 방과 후 학습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정환이, 2003, p. 1). 바이올린은 현악기군에서 규격이 가장 작고 피아노나 관악기와 달리 다양한 크기의 악기가 있어 만 3-4세 유아들도 비교적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이올린의 입문 과정은 다른 악기군보다 기본자세를 갖추는 데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고, 어느 정도의 연주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김선명, 2005, p.1). 그러므로 입문과정에서 다른 악기 군에 비해 비교적 흥미를 갖기가 어려운 편이며, 연구자의 교육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까다로운 입문 과정이 교육대상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쉽게 지겨워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바이올린 입문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초보자 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에 나와 있는 초보 바이올린 교육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스즈키, 시노자키, 호만 교본 등 현재 출판된 교재를 활용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재의 도입부분에는 연주법을 배우기 전,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바이올린 파트에 대한 명칭과 구조를 교사가 대부분 학생의 악기나, 바이올린 교재에 나와 있는 바이올린 구조의 그림을 보고 설명하고 있다(류수연, 2004; 노혜은, 2007; 오인교, 2003; 최윤진, 2003).

실기도입 부분에서는 바이올린의 소리를 발생하게 하는 도구인 활을 잡는 위치와 자세가 더욱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교사는 활을 잡는 위치를 구두로 설명하며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림 또는 사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강은미, 2013; 김광애, 2000; 배은경, 2008). 그밖에 모형 활로 연필, 수수깡, 펜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활 잡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김경민, 2013; 정환이, 2003).

그러나 연구자는 바이올린 교재에 있는 사진이나, 연필 등의 다소 평면적인 자료보다 집중력과 흥미를 유발하는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위해 보다 시각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돕고, 교육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이 시행 되어야 할 필요를 교육현장에서 느꼈다.

이금희(2003)는 흥미에 대해 어떤 일이나 활동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좋고 즐거운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새로운 활동의 시도를 통하여 계발 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도방법¹⁾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활동을 통하여 아동은 활동에 쉽게 참여하며 학습의 기회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김수진, 2005; 장혜원, 2007, p. 79에서 재인용).

바이올린 교육에 관한 연구에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선례를 살펴보면, 류수연(2004)이 고양이, 사자, 토끼 모양의 캐릭터로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여, 오선악보 위의 음정을 잘 읽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김지희(2011)는 풍선과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여 셈여림에 대한 설명하고 있으나 두 연구 모두 음악이론기초에 대한 도입 사례들이며 바이올린에 대한 시각적 효과 활용은 아니다.

문다영(2014)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²⁾을 적용하여 미술 활동을 방과후학교 바이올린 수업에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바이올린 자세부터 배우는 초보 학생이 아니라 간단한 동요 등의 연주가 가능한 학생들로서 바이올린 교육 자체에 대한 미술활동이라기보다 음악성에 영향을 주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음악성이나 음악기초이론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바이올린 교육 자체, 즉 시각적 자료를 통해 바이올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술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까다로운 바이올린 입문과정에서 교육대상자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방과후학교의 강화 등 그룹레슨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 특성에 적합하고 보다 효율적인 바이올린 교육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광자(2001, p. 39)는 방과 후 수업에서 10명 이상의 아동을 한꺼번에 수업함으로써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였으며, 조희영(2003, p. 7)은 방과 후 수업은 그룹 지도로 행하여지는데 단순히 교본에 의존한 진도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1) 황연하(2008, p. 11)는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 음악적 개념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개별적 자극의 합보다 더 큰 교육효과를 이루어내었다고 분석했다. 김미령 (2012, p.39)은 ‘하나의 개념을 두 가지의 감각, 혹은 이와 관련된 그 이상의 감각들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2) 문다영(2014, p. 5) 1983년 가드너(Gardner)가 논리수학, 언어지능과 같이 특정 지능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IQ 검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으로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강조하였다. 언어,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음악, 인간친화, 자기성찰, 자연, 실존 지능 등 아홉 가지를 다중지능으로 제안하였고, 이 지능들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 지적하였다. 방과 후 학교 음악교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연구(박은영 외, 2012 pp. 164-167)에서는 대부분의 교사 본인들이 그룹 레슨으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교수법의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룹 레슨에 대한 교육 콘텐츠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어 교수법과 그룹 레슨 방법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가 자신의 지도교수나, 레슨 선생님의 교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자신이 적합한 음악 교사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현미(2005; 장혜원, 2007, p. 79에서 재인용)는 이와 같은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려면 활동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활동 중심의 교육이란 단일목표를 연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이소현, 박은혜, 2001; 장혜원, 2007, p. 79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각적 자료와 미술활동의 도입으로, 반복되는 설명으로 인한 교사나 학생들 상호간에 지치기 쉬운 수업으로부터 벗어나 흥미유발을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개인 레슨 뿐 아니라 방과후수업과 같은 그룹레슨 교수법에 대한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미술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도구를 한 번 사용 후 결과에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행하여진 미술활동 중 휴지심으로 활 교정기를 직접 만들고 사용한 예에서는 성북 꿈의 오케스트라 비올라 반 학생들에게서 효율성에 대한 반응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 활동에 참여한 3개의 기관 4개의 그룹 중 다른 그룹들은 휴지심 교정기를 한 번 사용하여 실험 진행 교사와 실험 참여 학생에게 효율성을 물어서 본 연구 결과에 반영한데 비해, 이 그룹은 휴지심 교정기를 3회 연속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여 미술활동 결과물을 악기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적용한 그룹이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이 결과를 유추해 볼 때, 휴지심을 만든 다른 그룹들이나 미술 활동의 또 다른 결과물인 팔 토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바이올린 교육과 미술활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연구³⁾이며 연구대상자의 세부적인 특성과 교육효과를 조사하기위하여 일반화를 목적으로 조사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료 수집 등이 주관적인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Creswell, 2010; 노현지 외, 2013, p. 10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실험에 임한 네 그룹 중 두 그룹은 연구자가 직접 교육하고 있는 그룹이므로, 직접 관찰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기록하였다.

시각적 자료 활용은 교사 주도로 바이올린을 배워본 경험이 없는 초보 학생들 대상 연구이므로 학생들의 기존 교육경험에 대한 비교분석이 불가능 하여 결과 수집은 관찰 일지⁴⁾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관찰 일지 내용도 같은 그룹 내의 시각적 자료 활용 전후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진행한 교사가 이 실험 이전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과 시각적 효과를 사용한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의 그룹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상황 및 현상 해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직접 면담법(Stainback & Stainback, 1988; 장혜원, 2007, p. 83에서 재인용)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교육하고 있는 두 그룹은 실험 한 달 이후, 설문지를 이용한 문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미술 활동의 하나인 휴지심 활 교정기의 경우는 두 명의 학생들에게 실험 6개월 이후 구술 면담을 시행하였고, 이 면담은 녹음하였다. 실험을 진행한 다른 두 교사의 교육 기관에서는 끝난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는 문서 면담을, 교사들에게는 문서 면담과 구술 면담을 시행하였다.

3) 2014년 4월 현재 RISS 기준, 바이올린과 미술 연관 자료 131건 중 바이올린 교육과 미술활동에 대한 자료는 0건, 비올라와 미술 연관 자료 68건 중 비올라 교육과 미술에 관한 자료 0건.

4) 부록에 관찰일지를 별도 첨부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바이올린 교육에 시각적 도구 활용과 미술활동을 도입하여 대상자 특성에 따른 교육효과와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바이올린 및 비올라 초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자료 활용 및 미술활동을 시도해 악기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하였다.

연구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의 참여를 통한 교육과 관찰을 시행하고 연구대상은 해당 교사가 교육을 시행하고 그룹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바이올린 교육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그 밖의 교육경험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5명은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각적 도구 활용은 교사가 준비하여 실행되는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초보자들에게 시행하여 효과를 측정하여야 하는 점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보자 그룹만 교육을 받고 있는 성북 꿈의 오케스트라 비올라 반 학생으로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올라 초보 학생들을 포함시킨 이유는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기본적 구조와 연주 주법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김수경, 1993, p. 31). 연구대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를 진행한 교사, 경력, 기관, 학생 수

교사	교육기관	학생 수	교육경험 유·무
A	서울 청덕초등학교	6명	4명(무), 2명(유)
	성북 꿈의 오케스트라(비올라)	6명	6명(무)
B	서울 숭덕초등학교	7명	5명(무), 2명(유)
C	서울 정릉초등학교	7명	6명(무), 1명(유)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시각적 자료 활용과 미술활동을 각각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상에 맞게 실시 및 연구하였다.

시각적 자료 활용은 2013년 6월에서 8월까지 성북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효과를 관찰일지에 기록하였다. 미술

활동은 성북 꿈의 오케스트라 비올라반과 청덕초에서는 2013년 6월에서 7월, 정릉초, 송덕초의 경우 2014년 방과 후 수업이 시작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하였다.

미술 활동은 성북 꿈의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반, 청덕초, 정릉초, 송덕초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회로 나누어 실험이 진행되었다.

시각적 자료의 경우, 현장에서 연구자가 바이올린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반복되는 설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컬러 테이프나 벨크로 테이프, 스티커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악기 수업 시간에 진행한 미술 활동은 바이올린 실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를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 미술이 주가 아닌 음악 수업 내 미술 활동이므로, 한 활동 당 1회 수업, 5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시각적 자료 사용의 효과는 자료 사용을 하게 된 동기와 효과는 관찰 일지에 기록하였다.

미술 활동에 대한 연구는 초보 학생들이 악기 실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도, 창의성 표현의 여부, 집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미술활동내용에 대한 학생의 질의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미술 활동 학생용 질문 내용

번호	구분	문항내용
1	흥미도	이 활동이 재미있었나요?
2		재미있었던 점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3	이해도	이 활동이 바이올린 공부나 연습에 어떤 면이 도움이 되었나요?
4	효율성	한 학기에 1~2회씩 바이올린과 관련된 미술 활동을 한다면 유익하거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질의내용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고자 동일한 내용의 질의와 미술활동 중 에피소드와 특이사항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네 가지 미술 활동 중 실기능력 향상과 학생들의 숨겨진 예술성이 표현된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미술활동내용에 대한 교사의 질의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미술 활동 교사용 질문 내용

번호	구분	문항내용
1	흥미도	학생들이 이 활동을 재미있어 하나요?
2		이 활동의 어떤 면을 흥미로워 했나요?
3	이해도	이 활동의 어떤 면이 바이올린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요?
4	실기능력	네 가지 미술 활동 중 학생들에게 실기능력향상에 가장 도움이 된 활동은 무엇입니까?
5	예술성	네 가지 미술 활동 중 악기 수업 시간에는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창의력과 미술성이 가장 발휘된 활동은 무엇입니까?
6	효율성	한 학기에 1~2회씩 바이올린과 관련된 미술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	기 타	이 활동의 에피소드나 특이 사항을 적어주세요

Ⅲ. 시각적 도구 활용

시각적 도구 활용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바이올린 입문과정인 연구대상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각 파트의 명칭, 오른손으로 활을 잡는 위치, 왼손으로 음정을 짚는 위치, 바이올린 현에 놓았을 때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위치를 기존의 바이올린 교재 등에서 활용되었던 사진 자료 등의 활용이 아닌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1. 벨크로 테이프⁵⁾(보슬이), 컬러 테이프, 스티커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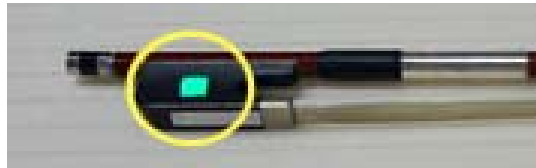
1) 활에 컬러 보슬이 붙이기

(1) 연구 동기 및 방법

활 잡는 법을 가르칠 때 다수의 강사들은 ‘엄지 동그랗게, 1번 손가락 중간 마디, 3번 손가락 동그라미에’ 등 말로 설명하며 손가락 위치를 보여주었다. 강사의 계속되는 설명과 시범에도 불구하고, 초보 학생들의 경우 계속 잘못 된 위치로 손가락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저학년일수록, 각 손가락 위치를 인지하

5) 이하 벨크로 테이프를 지칭할 때 “보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함.

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시도한 방법은 시각과 촉각을 이용한 보슬이를 사용하였다. 대개의 바이올린 초보 학생들은 3번 손가락(6) 활털 이음틀(frog)까지 내려오지 않고 활대(stick) 끝 쪽으로 잡고, 4번 손가락을 직선으로 펴는 보편적인 실수를 하므로, 3번과 4번 손가락 자리에 보슬이를 붙였다.



[사진 1-1] 오른손 3번 손가락 자리에 보슬이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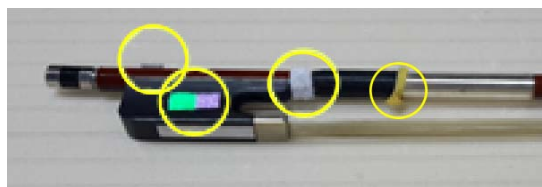


[사진 1-2] 오른손 4번 손가락 자리에 보슬이 붙임



[사진 1-3] 보슬이를 이용해서 활 잡은 예

저학년의 경우는 아래 사진과 같이 활과 손가락이 닿는 곳마다 색깔별로 보슬이를 붙였다.



[사진 2] 손가락 위치별로 색깔별 보슬이를 붙인 예

6) 바이올린에서의 손가락 번호는 검지가 1번, 중지가 2번, 약지가 3번, 소지가 4번이다.

(2) 효과

고학년일 경우, 3번 4번 손가락 위치에 보슬이의 촉감으로 활 잡는 손가락 위치를 스스로 손쉽게 교정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보슬이를 사용하기 전의 학생들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오른손 3번, 4번 손가락이 바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연구자가 일일이 지적하고 교정해 주었으나, 학생들은 다시 본인이 잡기 편한 위치로 돌아가기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보슬이 사용 이 후에는 본인이 활 잡는 위치를 시각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한 후 활을 쥐게 되고 연주하면서도 바른 위치에서 어긋났을 때 본인이 촉각으로 느끼게 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활잡는 위치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색깔별 보슬이 사용 한 저학년의 경우에는 손가락 위치를 설명해 주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보슬이 색깔별로 손가락 자리를 배치하여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스스로 활을 쥌 수 있는 효율성과 집중력을 교육현장에서 확인하였다. ‘빨강, 노랑, 초록, 하양, 파랑’이라는 가사를 넣어 간단한 음률로 노래하게 하니, 나이가 어리거나, 그룹 레슨의 경우에도 활을 잡는 위치를 어려워하지 않고 잘 기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보슬이의 시각적인 효과와 촉감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활을 잡는 위치를 손쉽게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2) 손가락과 활 닿는 곳에 컬러 테이프 붙이기

(1) 연구 동기 및 방법

초보 학생들이 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오른손 검지의 중간 마디에 활과 손가락이 닿아야 하는데, 손톱이 있는 첫 번째 마디에 활이 닿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손가락에 힘을 주게 되어 맑고 고운 소리가 아닌, 눌러지고 거친 소리가 나게 된다.



[사진 3] 활 접촉하는 손가락 마디에 색깔 테이프 부착의 예

이와 같이 연구대상자가 중간마디에 정확하게 활이 닿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위의 <사진 3>과 같이 활이 닿는 손가락 부분에 색깔 테이프를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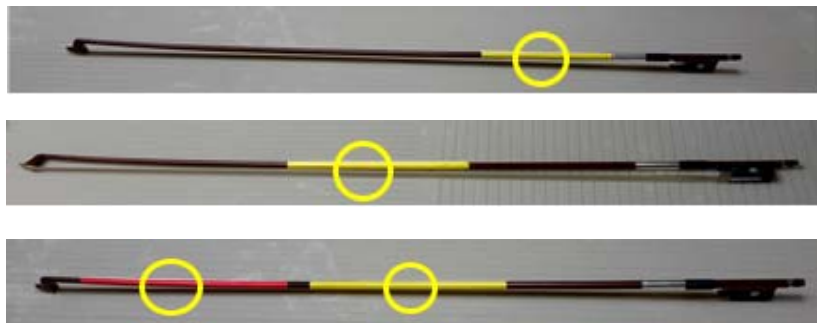
(2) 효과

학생들에게 설명으로만 검지의 중간 마디로 활을 쥐라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 검지에 붙여진 색깔 테이프를 보면서 활을 쥐기 전에 학생 스스로 손가락의 위치를 확인하고 활을 쥐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바이올린을 켜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지면 스스로 바른 자세로 고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3) 컬러 테이프로 활사용 부분 표시하기

(1) 연구 동기 및 방법

초보자들에게 밀 활부터 윗 활까지 온 활로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중간 활부터 가르치는 교사도 있다. 이는 교사들이 학습한 스타일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활용하는 스즈키 교본 1권에 나오는 곡들은 중간 활이 많이 사용된다. 중간 활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서 밀 활을 사용하게 되면, 활을 비뚤게 쓰게 되고 이것은 소리의 질과 바로 연결된다. 학생들이 중간 활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깔 전기 테이프를 붙였다.



[사진 4] 전기 테이프로 활 위치를 표시한 예

학생이 중간 활이 익숙해지고 윗 활을 학습하게 될 때는 중간에 있던 테이프를 떼고, 윗 활에 붙인다. [사진 4]의 세 번째 사진처럼, 중간 활에 테이프를 붙인 채, 윗 활에 다른 색깔의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였다.

(2) 효과

테이프를 사용하기 전에는 중간 활을 사용해야 될 부분에서 밑 활을 쓰고 있으면 연구자가 일일이 교정해줘야 했다. 테이프 사용 이후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중간 활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중간활의 정확한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

4) 악기 현 별로 색깔 스티커 붙이기

(1) 시각적 도구 활용 동기 및 방법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게이름, 다시 말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떤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아빠 줄, 엄마 줄 등으로 현에 이름을 붙여 가르친다. 게이름을 아는 학생이라도 초보 바이올린 학습자는 가장 굵은 현이 1번인지, 가장 가는 현이 1번인지 혼돈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1번 현, 2번 현 이라는 개념을 익혀주기 위해서 1번현에는 빨강 스티커 1개, 2번현에는 노랑 스티커 2개, 3번현에는 초록 스티커 3개, 4번현에는 파랑 스티커 4개를 붙여서 학생들이 줄의 순서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빨강-노랑-초록-파랑의 패턴은 뒷부분에서 언급할 음정 표시용으로 지판에 부착되는 왼손 1번 손가락부터 4번 손가락까지의 테이프 색깔 패턴과 같다.

(2) 효과

아직 게이름을 모르는 저학년들에게 ‘1번 현, 2번 현’ 등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특히 그룹레슨에서는 몇 번 현인지 혼돈이 오는 학생들에게 색깔로 설명하여 이해가 안 되어서 뒤쳐지는 사람이 없이 본인이 연주해야 할 현을 잘 파악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5) 스티커로 컨택 포인트⁷⁾ 표시

(1) 시각적 도구 활용 동기 및 방법

7) 활과 악기현이 닿는 부분

바이올린 교육 입문 시, 활을 브릿지와 지판 중간에 놓고 소리 내는 연습을 한다. 그 지점에서 건강하고, 울림이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바이올린 초보자들의 경우 활이 브릿지 가까이에서 가까이 가서 거친 소리가 나거나, 지판 가까이 가서 약한 소리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사진 5]에서처럼 브릿지와 지판 중간 위치의 바이올린 가장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서 활 굿기를 시작할 때마다 좋은 소리가 나는 지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스티커에 먼저 활을 붙이고 시작하게 하였다.



[사진 5] 바이올린 줄 별로 색깔 스티커 붙인 예

(2) 효과

스티커를 활용하기 전에는 ‘지판 가까이 가지마세요’, 혹은 ‘브릿지 쪽으로 활 쓰세요’라고 학생들을 지도해도 학생들이 지판에서 활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컨택 포인트를 나타내는 이 스티커의 이름을 ‘안녕’ 이라고 하고, 학생들이 지판에서 활을 쓰고 있으면 활 위치를 확인하라는 설명 대신에 ‘안녕 하고 왔어요?’라고 물어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컨택 포인트를 확인하고 활과 줄이 만나는 위치를 교정하여 악기에 대해 쉽고 친숙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지판에 색깔 테이프 사용해서 음정 표시

(1) 시각적 도구 활용 동기 및 방법

초보자들의 현악기에 테이프로 음정을 표시하는 방법은 매우 전통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연령, 즉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섬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위해 같은 색깔의 테이프를 4개를 붙이지 않고, 1, 2, 3, 4번의 손가락별로 각각 다른 색깔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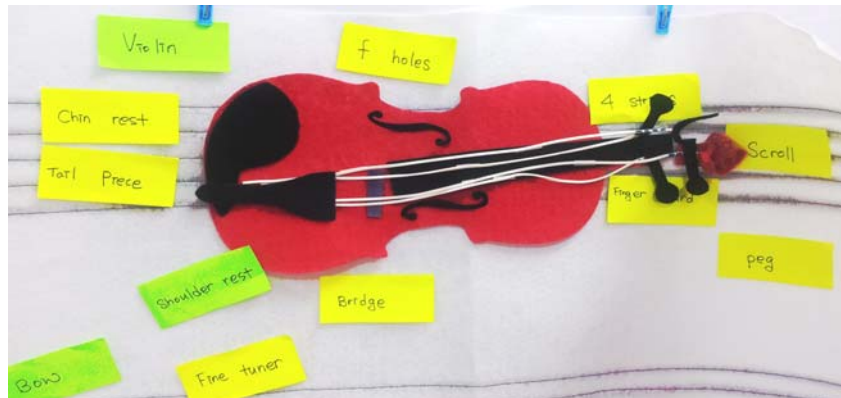
[사진 6] 바이올린 지판에 컬러테이프 붙인 예

(2) 효과

현악기에서 의미하는 손가락 번호는 검지부터 1번 손가락으로 시작해서, 새끼 손가락(소지)이 4번 손가락이다. 그러므로 입문과정에서 학생들이 손가락 번호를 많이 헷갈려 한다. 또한 왼손과 오른손의 전혀 다른 역할 때문에 처음 자세를 배우는데 많은 혼돈이 있으나 1번 손가락 자리 대신에 ‘빨강 스티커’로 사용하여 학생들이 손가락 번호로 설명하는 것보다 반응속도가 빨랐으며, 손가락 번호에 대한 혼돈을 줄일 수 있었다.

7) 제언

시각적 자료를 활용 하는 이유는 입문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혼돈과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흥미와 집중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악기 연주를 잘 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보조도구이므로 악기 학습에 필요한 주된 감각인 청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악기를 잡는 자세나 위치에 익숙해지자마자 보조 도구를 바로 제거하여 시각적 자료의 의존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청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악기 교육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아가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위하여 세발자전거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된 이후에는 두 바퀴로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세 개의 바퀴가 필요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사진 8] 펠트지로 만든 바이올린 파트를 학생이 원래 모형으로 조립한 예

2) 효과

이와 같은 활동은 아이들이 흥미를 높게 보였으며 집중력 있게 과제를 수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룹 레슨 중에 서로 조립하려고 하는 경쟁심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더욱 흥미를 보였다. 펠트지로 만든 바이올린 모형에 파트를 떼었다 붙였다 할 때의 감각을 학생들이 좋아하였다. 초보자에게 매 수업 시간에 이 도구를 2~3분 안에 짧게 활용하고 수업하니, 악기 파트에 대한 암기력도 높아졌다.

IV. 미술 활동 내용 및 악기 수업 적용

1. 연구 동기 및 방법

평소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주어졌어도 반복되는 실수를 할 경우 시각적 도구가 필요함을 발견하였고 이 도구를 학생 스스로가 만들도록 하였다. 연구방법은 아동미술관련 도서와 음악과 미술의 융합교육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이올린과 관련된 미술활동을 찾고자 고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동기가 있는 각각의 미술활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2. 음정 패턴 익히기

1) 연구 동기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손가락 번호가 1,2,3,4번으로 진행 될수록 음정도 규칙적으로 2도씩 올라간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단순히 보이는 이 패턴도 혼동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라-시-도-레 등으로 순차적인 패턴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음표로 표기된 악보를 읽기까지 또 다른 과정이 필요했다. 연구자는 악보에 나타나 있는 음정과 바이올린에서 연주되어지는 음정을 매치시키는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2) 미술 활동 절차

(1) 하얀 펠트지에 바이올린 (비올라) 현처럼 얇은 4개의 검정 펠트지를 재봉틀로 박아서 모형 바이올린 현을 만들었다.⁸⁾

(2) 오선지 종이를 코팅하여 음표 하나를 그릴 수 있을 만큼 작게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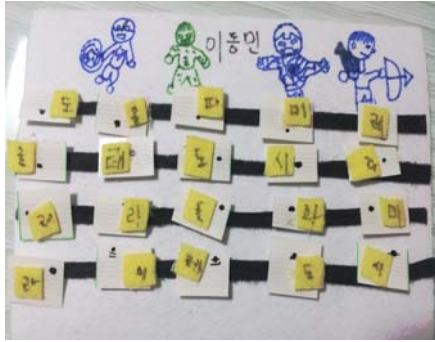
(3) 학생들에게 오선지에 ‘높은음자리표 (또는 가온음자리표⁹⁾)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악기 1포지션에 나오는 음정의 음표를 하나씩 그린 후, 모형 현에 붙였다.

(4) 연한 노란색의 펠트지를 현과 현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자른 후, 학생들에게 계명을 적게 한 다음 모형 현에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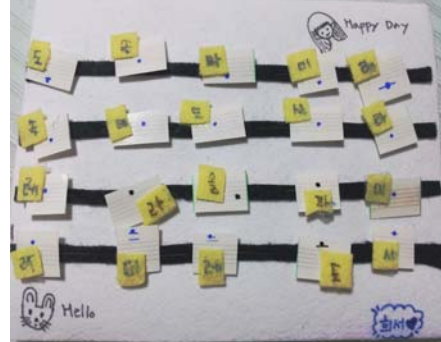
(5) 오선지에 음자리표를 그리지 않은 이유는 작은 공간에 똑같은 기호가 한 줄에 다섯 개, 전체 20번이 반복되면 복잡해지므로, 오선에 그려진 음정을 보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때문에 ‘오선 앞에 음자리표가 있다’라는 가정 아래 음정을 표기하게 하였다.

8) 검정 펠트지에 하얀 색 부직포를 이용하여 바이올린 현 형태를 만들어도 무방하다.

9) 비올라의 경우 가온음자리표를 사용한다.



[사진 9-1] 비올라 모형 현에 음정
놓기의 예



[사진 9-2] 비올라 모형 현에 음정
놓기의 예

3) 학생들의 반응 및 효과

(1) 부드러운 무채색 바탕의 펠트지, 코팅된 오선지와 그리고, 유채색의 펠트지에 네임 펜으로 직접 음정을 그리고, 계명을 적었다. 접착 방법도 벨크로 테이프와 양면테이프를 사용하는 입체적 재료를 사용하였으므로 학생들이 집중력 있게 작업하였다.

(2) 이 실험을 시작할 때 음정을 그리고, 계명을 적어 넣으라고 지도하였는데, 위의 사진처럼,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나 캐릭터를 자발적으로 그려 본인 고유의 작품임을 보여준 학생들이 있다. 작은 작품이나 과제에서도 개인의 미술적 성향을 표현하려는 학생들의 창의력이 보였고, 본인이 직접 개성 있는 그림을 삽입했으므로, 이 과제물이 가진 음정패턴을 한 번 더 보게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활동 이후, 학생들의 음정 패턴에 대한 혼돈이 없었다.

(3) 학생 스스로 반음과 온음 간격을 눈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왼손 위치를 익힐 수 있었다.

4) 강사가 느끼는 효과

이 활동을 진행한 세 명의 교사 모두 이 활동 이후 학생들의 손가락 번호와 음정 진행에 관한 혼돈이 없어졌다고 한다. B교사의 경우 바이올린 학습 2년째에 들어서지만, 바이올린을 지겨워하여 발전이 없는 두 학생이 이 활동에 집중력을 가지고 참석하였다고 하였다. 각 교사의 관찰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음정 패턴 익히기’ 활동 후 교사의 관찰 및 반응

구분	내용
A 교사	· 개인 레슨 시, 바이올린 초보 학생의 경우 손가락 번호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한 음정씩 올라간다(2도씩 진행)는 패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다. 이번 실험 참가자인 꿈의 오케스트라 학생 6명이 이전에 비올라는 물론, 바이올린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었는데, 이 활동 이후 음이 진행되는 패턴에 대해 전혀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다.
B 교사	· “새터민 출신으로 음악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던 초보 학생이 있는데, 이 활동 이후 한 시간 만에 음정 패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C 교사	· 모형 현이 실제 악기 보다 크게 제작 되었으므로 학생들이 음정 간의 간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본인들이 어떤 음정을 짚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5)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은 그룹 레슨을 받는 초보 학습자이므로, 음악 이론을 가장 모르는 학생을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악기 자체가 다른 악기군에 비해 복잡하여 어려워하고 샹 (#)과 플랫 (b)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학생들에게 반음 온음 차이의 설명을 잠시 뒤로 미루고, 2도 간격씩 차례대로 진행되는 체계부터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진9]에서처럼 반음 온음 간격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음정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3. 휴지심을 이용한 활 자세 교정기¹⁰⁾ 만들기

1) 연구 동기

현악기 연주자, 특히 초보 학습기간에 좋은 소리 내기위해서는 활을 바른 자세로 잡느냐와 틀린 자세로 잡느냐에 따라 부드럽고 울리는 소리와 거칠고, 막혀진 소리 등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바이올린 교사들이 초보자들을 가르칠 때 활을 쥐는 오른손을 동그랗게 하라고 항상 강조하지만 초보자들은 모든 손가락 혹은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을 일자로 펴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손가락이 일자로 펴지게 되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딱딱하게 되어 공명을 방해하여 아름다운 소리가 낼 수 없게 된다. 활을 바로 잡는 자세를 익히게 하는 방법은 보통 구두설명이나 교사

10) 이후에 휴지심 활 교정기라고 칭한다.

가 학생들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형태 등으로 실시되어지고 있지만, 활 쥐는 자세는 입문과정의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새로운 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교육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삶은 달걀을 준비하여서 활을 쥐기 전에 달걀을 쥐게 하였다. 이 방법의 한계는 학생들이 바른 자세를 쥔 때까지 매 수업마다 삶은 달걀을 준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어린 학생들은 달걀 껍데기를 일부러 벗기기도 했고 계란을 떨어뜨려서 계란 껍데기가 깨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어 바이올린 수업보다 달걀 껍데기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산만한 학습 분위기를 초래하였다. 이 때문에 달걀 모양과 비슷한 장난감을 찾으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 하였다. 만일, 찾았더라도 그룹 레슨의 경우 비용발생의 문제도 야기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중 ‘엄마표 홈스쿨 미술 놀이’(박정아 저, 2009: 청어람 미디어, pp. 59-59)의 휴지심을 이용한 미술 활동을 참고하여 활 쥐는 모양과 매우 유사한 손으로 휴지심을 잡는 모양을 응용하였다. 또한 재료는 폐품을 활용하였으므로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아이들이 더 흥미로워 하는 요소가 되었다.

2) 휴지심 만들기 절차

색종이와 스티커, 색갈 싸인 펜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휴지심을 장식하게 하였다.



[사진 10]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휴지심 활 교정기

3) 학생의 반응 및 효과

(1) 상상치 못한 기발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디자인들이 나왔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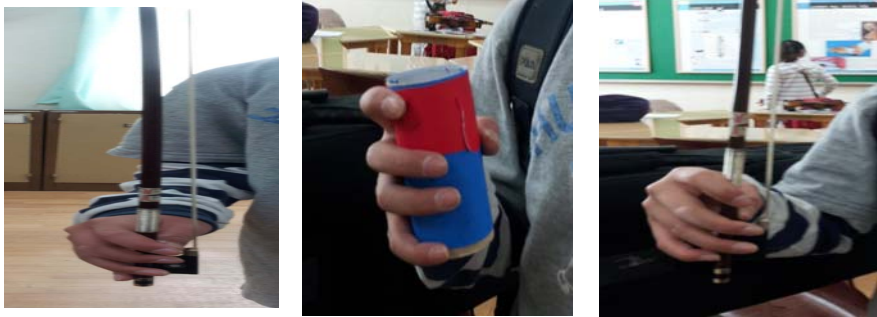
(2) ‘엄지 동그랗게, 새끼손가락 동그랗게’ 라고 말로만 설명한 부분들이 휴지심으로 손을 잡으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해가 되고 자세가 교정되었다.

(3) 휴지심 활 교정기에 대한 흥미도에 대해 응답한 26명 학생 중 재미있다 라고 대답한 학생은 13명(50%),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10명(39%), 재미없다라고 대답한 학생 3명(11%)으로 대다수의 학생에게서 보통이상의 흥미를 느꼈다고 결과가 나왔다.

(4) ‘활 교정기가 도움이 되었나? 라는 질문에 58%인 15명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하였고,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35%인 9명, 도움이 안 되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7%인 2명이었다. 꿈의 오케스트라 응답자 6명 중 5명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기관은 정릉 초등학교로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4명,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3명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활 교정기를 3회 연속으로 수업시간에 사용하였다. 정릉초는 활 교정기를 2회 사용하였고, 청덕초등학교와 송덕 초등학교는 활 교정기 만드는 시간에만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활 교정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활 교정기 사용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1]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교정된 학생의 예



[사진 12]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교정된 예

4) 강사가 느끼는 효과

휴지심을 이용한 활 자세 교정기 만들기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각 교사의 면담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휴지심 활 교정기 만들기 이후의 교사의 관찰 및 반응

구분	내용
A 교사	· ‘손을 동그랗게 쥐어라’라는 이야기 보다 휴지심 잡는 모양으로 해 보라고 했을 아이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 활 교정기를 만든 이후에도 학생들의 손가락이 예전처럼 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휴지심 잡았던 자세를 생각해 보라고 상기 시키니, 교사가 설명할 때보다 빠른 반응이 와서 교정 속도가 향상 되었다. 이미 만들어진 교정기가 아닌 본인이 직접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과 교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 개인 레슨하는 학생들도 활 교정기를 만들었다. 교정기를 이용한 효과는 똑같았지만, 혼자 만드는 경우보다 친구들이나, 같은 부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더 열기를 띠었다. 요즘은, 악기수업이 방과 후 수업처럼 그룹 레슨이 많으므로, 이 활동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앞에서 언급한 계란과 달리 여러 번 반복 사용이 가능하였다. · 학교에서 그룹 레슨의 경우 똑같은 곡인 오케스트라 레퍼토리를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에게 숨겨진 창의성을 악기 시간에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숨겨진 창의성을 볼 수 있었다. · 악기를 연습하는 것은 똑같은 악보를 보면서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이 활동에서 똑같은 색종이를 학생들에게 재료로 내어주었는데, 앞의 사진처럼 한 학생은 수염을 가진 신사로, 한 학생은 ‘재밌게 살자’ 라는 로고를, 한 학생은 얇은 선으로 잘라 세련된 무늬를, 한 학생은 꽃발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린 학생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창

구분	내용
	의성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다. · 한 3학년의 경우, 세련된 무늬로 휴지심을 장식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주었더니, 자신의 장래희망이 디자이너라고 하였다. 악기 수업만 진행했으면 몰랐을 학생들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여 학생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B 교사	· 학생들이 색종이로 오리고 붙이는 과정을 좋아하였다. · 자기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았다. · 손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쉽게 이해하였다.
C 교사	· 아이들이 활을 쥘 때 동그랗게 해라는 말을 실감하지 못하여 고치지 못하였는데, 이 활동 이후, 학생들이 직접 느끼며 고칠 수 있었다 · “활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잡은 학생들이 이 활동 이후, ‘선생님, 이렇게 잡는 것 맞아요?’라고 물어보면서 올바른 자세에 대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악기 수업에 미술활동을 접목시킨 주된 동기는 초보자들에게 사실적으로 악기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미술 활동을 진행한 세 명의 교사 모두 학생들의 테크닉에 가장 도움이 된 활동으로 휴지심 활 교정기를 꼽았다. 휴지심을 잡은 모양이 활 쥐는 모양과 유사한 테크닉적인 면에, 학생 고유의 창의적인 활동이 더해져서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교사들의 결론이다.

4. 중간활 바르게 쓰는 보조 도구¹¹⁾ 만들기 - 팔토시

1) 연구 동기

중간 활은 초보자들이 학습하는 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의 위치이다. 중간 활 쓰기에서 중요한 점은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고, 앞 팔만 상용하여 활이 뒤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 점이다. 하지만 팔꿈치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기 때문에, 중간 활 쓸 때 팔꿈치를 고정된 채로, 앞 팔만을 움직이기가 어렵다.

다수의 바이올린 강사들은 지도하는 학생이 활을 그을 때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빠지지 않도록 일일이 잡아주지만, 학생들의 팔꿈치를 다시 놓을 때는 원래대로 팔꿈치가 계속 움직이게 된다.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고 팔만 움직이는 동작 연습을 따로 하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오른팔의 어떤 부분을 쓰는지 시각

11) 이하 팔토시 라고 명명한다.

적 개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팔토시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2) 미술활동 절차

(1) 학생들에게 각자의 손목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와 앞 팔을 한 번 감을 수 있는 정도의 폭 정도로 천을 잘라준다. 깨끗한 기저귀 천, 하얀 천, 자투리 옷감을 사용하였다.

(2) 천 위에 파스텔, 네임 펜, 수정액 등의 재료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벨크로 테이프를 오려서 장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팔토시의 앞뒷면으로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착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팔토시처럼 바느질로 연결하고, 고무줄을 넣어 신축성을 가지게 하여 보다 제대로 된 팔토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아이들과 진행할 때는 수업시간 내에 미술 활동을 끝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팔토시를 착용하여야 했으므로, 간단히 고정시킬 수 있는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하여 착용하였다.



[사진 13] 학생들이 만든 팔토시 - 펼친 모양

3) 학생들의 반응 및 효과

(1) 학생들이 토시를 만들 때의 분위기가 악기를 연습할 때보다 진지하였다.

(2) 흥미도 면에서 총 응답자 26명 중 13명(50%)이 '재미있다'라고 대답하였고, 9명(34%)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은 재료들을 천에 붙이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다고 하였다. 13명(50%)의 학생이 팔토시가 활을 바르게 쓰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7명(28%)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다.

[사진 14] 팔토시 착용의 예¹²⁾

4) 강사가 느끼는 효과

<표 6> 중간활 교정기 (팔토시) 만들기 이후의 교사의 관찰 및 반응

구분	내용
A 교사	· 팔의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몰랐던 학생들이 팔토시 착용 후 앞 팔을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갔음을 볼 수 있었다.
B 교사	· “바이올린을 한지 2년차로 접어드는데, 실력이 거의 향상되지 않은 두 자매가 자신만의 작품이라는 생각에서 학생들이 애착을 가지고 팔토시를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미술을 그렇게 잘 하는지 몰랐어요. 이 활동 이후로 제가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게 되고, 이 아이들도 이 활동을 계기로 칭찬받으니 바이올린으로 수업하면서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C 교사	· 다른 학생들에 비해 활을 비뚤거리게 써서 바이올린을 재미없다고 말한 한 학생이 강사의 지도와 안내로 팔토시 연습 많이 하면 좋아진다고 잘 인도해 주자, 다음 주에 정말 활을 바로 쓰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팔’을 떠올리면,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팔 전체를 생각하게 되고, 팔꿈치를 기준으로 윗팔, 앞팔을 따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학생들이 앞팔만 사용해야 되는 중간활의 경우 팔꿈치를 움직이게 되어서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팔토시가 팔꿈치를 기준으로 앞 팔과 윗 팔의 경계를 눈으로 확인하여 학생들이 신체의 특정한 부분을 사용해야 될지 구분하여 중간활을 쓸 때 앞 팔만을 사용하여 바이올린 소리가 잘 붙는 효과가 나왔다.

- 12) 제한점: 학생들이 활 쓰기 시작을 바른 위치에서 시작하였다 할지라고 움직이면서 윗팔 쪽으로 이동하면서 팔꿈치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활을 비뚤게 쓰기 때문에 학생들의 팔토시 착용 전후의 상태를 비교하려면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의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면에서만 표현하므로, 팔토시 착용했을 때를 포착한 사진으로 대신하는 제한점이 있다.

5.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를 통해 바이올린 콜라주 만들기

1) 연구 동기

아동미술 관련 책(박정아, 2009, pp. 28-29)을 보던 중, 야외에서 떨어진 나뭇가지 및 나뭇잎 등을 채집하여 바이올린 콜라주를 연구자가 먼저 만들어보았다. 악기 수업을 받고, 연습하고, 연주하는 장소가 대부분 실내인데, 야외로 나와서 자연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는 무관심하게 보던 나무, 꽃, 풀들이 자료채집을 위해 살펴보니, 자연을 더 자세히,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우리는 만들어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습하고 연주하였는데, 직접 바이올린 형태를 만드는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하면, 습관적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연습하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 미술 활동 절차

색종이, 색연필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술 도구가 아닌 자연에서 채집한 나무 가지, 떨어진 꽃잎, 잡초들을 가지고, 하얀 종이 위에 바이올린 콜라주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바이올린은 똑같은 모양인데, 개인이 채집한 재료들은 모두 달랐으므로 콜라주로 만든 바이올린은 다양하였다.

3) 학생의 반응 및 효과

(1) 바이올린 콜라주를 만들었던 수업시간 말미에 학생들에게 ‘다음 시간에도 이 활동할까?’ 라고 물어보니, 평소 수업 시간에 바이올린만 성실히 연습하고, 자기감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한 학생이 아주 크게 “예”라고 대답하였다. 담당 교사가 이것 때문에 바이올린 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서 연습해 올게요’ 대답하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2) 한 5학년 한 학생은 악기 수업 때 이따금 미술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 ‘대환영’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썼다.

(3) (1)와 (2)의 학생들에게 바이올린 콜라주 활동 후 6개월 뒤에 이 활동을 하고 변화 된 점을 물으니, 두 사람 모두 이 활동 이후 바이올린이 더 좋아졌다고 하였다.

(4) 바깥에 나가서 재료를 주워오는 것이 좋았다는 학생과 이 재료를 붙이고 오려서 만들기 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는 학생이 있었다.

(5) B교사의 경우,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친구와 친해지게 되어 좋았다는 학생도 있었다.

(6) 바이올린 콜라주가 재미있었냐는 질문에 78%인 20명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하였고, 3명(11%)의 학생만이 ‘재미없다’ 라고 답하였다. 이 활동이 바이올린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 라는 질문에 18명(71%)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유는 바이올린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이 활동 이후에 바이올린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진 15] 학생들이 만든 바이올린 콜라주

4) 강사가 느끼는 효과

<표 7> 바이올린 콜라주 만들기 이후의 교사의 관찰 및 반응

구분	내용
A 교사	· 재료를 채집할 때 줄기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나 꽃 등을 것은 일부러 떼지 말고, 땅에 떨어진 재료만 활용하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는 무심코 지나친 땅에 떨어진 식물에 대한 관찰력을 향상 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하였다. ·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자연과의 어울림, 학생 개개인 고유의 바이올린을 만든 것이 식상해 질 수 있는 바이올린 시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
B 교사	· 학생들이 바이올린 모양에 맞는 꽃잎이나 나뭇가지를 채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 악기 부분 명칭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 2인1조로 만드는 팀에서 좋은 협동심을 보게 되었다.
C 교사	· “자녀들이 악기를 싫어하는데도 그냥 시키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아이들은 악기 하는 자체를 거부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바이올린 콜라주를 만들 때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구한 재료로 콜라주를 만드니 더 흥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 자연에 나가서 학생들이 직접 채집한 재료로 콜라주를 만드니 더 흥미를 가지는 것 같다. · 지판, 펙, 턱받침 위치 등 악기의 구조 및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학생들이 세심히 관찰하였다.

미술활동에 참여한 세 교사 모두 학생들의 흥미도와 창의력 및 예술성을 가장 잘 보여준 활동으로 자연재료를 이용한 바이올린 콜라주 만들기 활동을 꼽았다. 어떤 학생들은 꽃의 줄기로 지판을 표현하고 다른 학생은 나뭇잎이 여러 장 달린 나뭇가지 전체로 지판을 표현했다. 어떤 학생은 나뭇잎으로 턱받침을 만들고 어떤 학생은 하얀색 꽃잎으로 턱받침을 표현하였다. 4개의 펙(peg)을 나뭇잎으로, 노란색 꽃잎으로, 돌멩이 등 같은 사물을 보고 각기 다르게 표현하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보게 되었다. 파트별로 다른 재료로 콜라주를 장식하게 되므로, 바이올린 명칭을 잘 알게 되었다. 바이올린을 계속 하다보면, 초보자일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예쁜 소리가 아직 나지 않기 때문에 악기 자체에 대해 식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본인이 다양한 재료, 특히 자연에서 직접 채집한 것을 이용해 바이올린을 직접 표현하므로 본인이 연주하는 악기를 더 의미 있게 여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악기 수업외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감각과 능력을 보며 학생들을 더 알고 친밀하게 되었다는 것이 교사들의 종합적인 의견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각을 주로 이용하는 악기 수업에 시각적 자료와 이를 이용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초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올린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술 활동을 진행한 3명의 교사 모두 한 학기에 1~2회씩 이와 같은 활동을 한다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교육의 효율성이다. 현악기는 오른손과 왼손의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바른 자세를 잡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 점이 학생들이 현악기를 어려워하고 지겨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다.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설명으로 서로가 힘들 수 있는 입문 단계의 수업을, 시각적 효과를 사용, 미술활동,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해 악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음정 패턴 이해, 좋은 악기 자세와 정확한 위치에서 활 쓰기를 학습함으로써 초보 바이올린 학생들에게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둘째, 청각을 이용한 음악활동에 시각적 효과와 시각과 미술활동을 연결한 다양한 교육의 시도로 학생들의 악기 수업에 대한 흥미가 상승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대했던 점은 효과적인 바이올린 교육이었으나, 연구를 진행하며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는 학생들이 바이올린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실험을 진행한 바이올린 교사 모두 이러한 활동들이 악기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시킨다고 답하고 있다. B교사의 경우 바이올린 학습에 대한 관심이나 성취도가 낮을수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바이올린 수업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미술 활동을 통해 악기와 친밀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악기 수업 시간에 시각적, 그리고 입체적인 재료를 활용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학생들이 악기에 대해 보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본인이 연주하는 악기에 향해 새로운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사들의 격려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자신감 상승이다. 대개의 경우, 초보 바이올린 학생들이 연습하는 곡들의 종류와 수는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통해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은 똑같은 곡을 함께 수업 받는 학생들과 다 같이 연습하므로, 개개인마다의 음악외의 숨겨진 예술성이나 창의성을 악기 수업 시간에는 표현할 기회가 없다. 본 연구의 실험을 진행한 세 교사 모두, 바이올린 교육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시각적 표현을 이용한 창의성과 표현력을 미술 활동을 진행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 학생의 잠재된 능력에 대한 교사들의 확인과 평가가 격려로 이어져 학생들이 바이올린 수업시간에 흥미와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그룹레슨 적용의 용이성이다. 전통적인 악기 교육은 1:1 레슨이다. 하지만, 방과 후 교육의 활성화와 단체의 교육이 활발해짐에 따라 악기 레슨이 그룹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따라 학생들을 일대일로 개인 레슨을 하더라도 50분에서 60분이라는 수업 시간동안 적게는 5~6명, 많게는 10명의 학생들을 한 선생님이 맡는 경우가 많아 개인레슨 교육체계에서 음악을 전공한 현재의 방과후 음악 강사들이 이 교육 시스템에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시각적 자료 활용과 미술 활동이 진행된 대상은 모두 그룹 수업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A 교사가 수업한 꿈의 오케스트라 비올라 반의 경우, 초보 학생 6명을 동시에 지도하였는데, 바이올린 활을 쥐기 전에 활 교정기를 연습을 하니 다수의 학생임에도 자세에 대해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었다. A 교사의 개인레슨 하는 학생들도 이 활동을 시도해 보았는데 학교나 기관처럼 그룹으로 모였을 경우에 아이들이 더 집중하고, 재미있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교사는 바이올린 콜라주를 2인 1조가 되어서 만들라고 주문을 하니, 바이올린 구조에 대해 서로 도와가며 면밀히 관찰하며 만드는 협동심을 보았다고 하였다. C 교사의 수업에서는, 미술 활동을 왜 하나고 질문한 학생들도 막상 작업에 들어가니 서로 경쟁하면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미술활동을 하였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의 기계 대신 본인이 손으로 직접 도구로 만들어 정서적인 면을 함양시킨 미술활동의 개발로 단위학교의 방과 후 음악 수업과 그룹 레슨 등 단체의 바이올린 입문과정에서 효율적인 교육 요소라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첼로나 더블 베이스 등 다른 현악기에도 시각적 효과와 미술 활동이 가능하며 관악기에도 음정 패턴 학습 활동이나 자연 재료를 이용한 악기 콜라주 만들기 등 본 연구의 내용 적용이 일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향후 다양한 악기교육에 활용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은미 (2013). 초등학생 바이올린 특기 적성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김경민 (2013). 바이올린 초급자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광애 (2000). 어린이 바이올린 교육에 관한 효율적 지도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 김미령 (2012). 음악과 미술의 통합수업에 관한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선명 (2005). Suzuki Method에 의거한 Violin 입문과정 지도법 고찰: 유아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소영 (200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violin 지도법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김수경 (1993). Violin과 Viola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지희 (2011). 유아를 위한 바이올린 기초교육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노현지, 최진호 (2013). 아츠프로펠을 적용한 방과 후 기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음악교육연구**, 42(1), 105-126.
- 노혜은 (2007). 바이올린의 효율적 수업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류수연 (2004). 바이올린 특기 적성교육을 위한 초급교재 모형 연구 (5세에서 8세 대상).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문다영 (2014).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방과후학교 바이올린 수업이 초등학생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은영, 김현, 김지현 (2012). 방과후 학교 음악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음악교육연구**, 41(3), 157-199.
- 박정아 (2009). **엄마표 미술놀이 홈스쿨**. 서울: 청어람 미디어.
- 배은경 (2008). 효율적인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지도 방안: 바이올린 교육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오인교 (2003). 초등학교 특기 적성 지도를 통한 바이올린 능력 향상 방안.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이광자 (2001). 실태조사를 거쳐서 본 바이올린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이금희 (2003). 아동의 음악 흥미도와 감성 지능과의 상관성 연구 - 바이올린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장혜원 (2007). 방과후 음악활동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방과후아동지도연구**, 4(2), 77-96.
- 전남숙 (2004). 바이올린 초보 수업지도의 실행 연구: Pre-twinkle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정환이 (2003). 어린이를 위한 바이올린 교수법: 스즈키, 룰란드, 즈바이그의 교수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희영 (2003). 창의력 신장을 위한 바이올린 지도방안 연구- 도봉구 지역 초등학교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최윤진 (2003). 초등학교 바이올린 특기·적성 지도 방안: 2·3·4 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ABSTRACT

A Study of Teaching Violin Beginners Through Visual Materials and Arts Activities

Won-Kyung Cho · Chun-Sa Hyun

This study is for violin beginners to learn firm basics and raise their interest and educational efficiency through visual materials and arts activities by practicing experiments analyzing their effect. Many violin teachers especially feel limitations when they teach beginners. This can be solved by using visual ingredients which students can feel violin intimate with. Children's arts education references have also been referred to.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students whom teachers of Seokyeong Music School, including myself, teach in a youth orchestra and in public schools. These teachers participated in conducting this study. The participating teachers and I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from students and teac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arts activities help students express students' creativity and the sense of arts. Teachers have been able to find student's hidden talent besides the sense of music and began to encourage their potential. These activities as well as visual materials and teachers' encouragement have raised their concentration and interest in instruments. Thus, after students have utilized the products of these arts activities, their technical skills have been improved.

Through this study, integrated education, which is that visual materials and arts activities combine to music education that mainly needs the auditory sense, can be implement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utilized as a basic method for developing contents of effective instrumental classes in various educational fields where group lessons are conducted.

Key words : beginner violin, beginner viola, arts, elementary violin, integrated education

투고일: 2014년 5월 31일, 심사(수정): 8월 1일(8월 8일), 게재확정일: 8월 21일

부록

시각적 효과 관찰 일지 요약정리

1. 교육기관: 성북 꿈의 오케스트라 비올라 반
2. 학년별 학생 인원: 초등학교 3학년-2명, 초등학교 4학년-2명, 5학년-2명
3. 실험 기간: 2013년 6월 19일 - 8월 14일
4. 실험 내용 및 효과

·펠트지를 이용한 바이올린 모형 만들기	실험날짜		6/19, 6/26, 7/3, 7/10	
	실험방법		· 펠트지를 이용하여 바이올린 파트별로 모형을 만들어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접착과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바이올린 모형대로 직접 조립하도록 함.	
	효과 - 활용	전	· 수업 시간마다 명칭을 설명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명칭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질문에 지겨워하는 경우가 많음.	
		후	· 펠트지 모양의 바이올린의 색다른 질감에 관심을 보임 · 파트별로 직접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여 학생들의 집중력과 참여도가 높음.	
·활에 걸러 보슬이 붙이기	실험날짜		7/3	
	실험방법		· 고학년: 3번과 4번 손가락 위치에 보슬이를 붙임 · 저학년: 손가락별로 각기 다른 색깔의 보슬이를 붙임.	
	효과 - 활용	전	· 수업 시간 마다 교사가 일일이 활 쥐는 모양을 교정하여 주었으나, 손가락이 원래의 활 잡는 위치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후	· 보슬이라는 시각적 촉각적인 두가지 감각을 사용하여 교사의 설명 이전에 학생 스스로 활 위치를 파악하려는 태도와 활 잡는 자세의 정확성을 보임. · 저학년이라도 스스로 손가락 위치를 확인하고 바르게 쥐려는 집중력을 보임. · 고학년일 경우, 바이올린 연습 및 연주 중이라도 손가락이 원래에 위치에서 벗어나면 촉감을 찾아 바른 위치로 스스로 찾아감.	
·손가락과 활 닿는 곳에 컬러테이프 붙이기	실험날짜		7/3	
	실험방법		· 오른손 검지 둘째 마디와 활 닿는 부분을 컬러 테이프로 표시함.	
	효과 - 활용	전	· 검지의 첫 번째 마디와 활이 닿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후	· 색깔 테이프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활과 손가락이 닿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바이올린을 켜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질 경우라도 스스로 인지하여 교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짐.	

·악기 현 별로 색깔 스티커 붙이기	실험날짜		7/10	
	실험방법		· 1번현에 빨강 스티커 1개, 2번현에 노랑 스티커 2개, 3번현에 초록 스티커 3개, 4번현에 파랑 스티커 4개 붙임.	
	효과 - 활용	전	· 가장 굵은 현이 1번인지 가장 가는 현이 1번인지 헛갈려함.	
		후	· 1번과 4번현 구분이 완벽하게 가능하여졌고, 계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 그룹레슨을 받는 학생들도 본인이 연주해야 할 현을 파악하게 됨.	
·스티커로 컨택 포인트 표시	실험날짜		7/17	
	실험방법		· 활이 바이올린 현에 닿을 때 건강한 소리가 나는 브릿지와 지판 중간 지점에 바이올린 가장자리에 스티커로 표시하여 그 부분을 기준으로 활 굿기 연습을 하였다.	
	효과 - 활용	전	· 스티커 사용 전에는 학생들의 활이 지나치게 브릿지 쪽에 있어서 투박한 소리가 나거나, 지판 쪽에 있어 지나치게 약하게 소리 나는 경우가 많았다. · 교사가 말로 일일이 교정할 때는 활을 몇 번 굿고 난 뒤 좋은 컨택 포인트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후	· 교사가 컨택 포인트를 표시한 스티커의 이름을 ‘안녕’이라고 명명하니 학생들도 친근하게 받아드렸고, 컨택 포인트가 벗어난 이후에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경우가 현저히 많아졌다.	
·컬러 테이프 활 사용 부분 표시하기	실험날짜		7/17	
	실험방법		· 밀 활, 중간 활, 윗 활 부분 별로 컬러 테이프를 붙여 활 부분 위치를 파악하여 연습하여 건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	
	효과 - 활용	전	· 중간 활에서 연주해야 할 부분도 무조건 밀활부터 연주하여 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후	· 오른쪽 팔꿈치의 움직임이 활 위치별로 다르고 이것은 건강한 소리와 직결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활 쓰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판에 색깔 테이프 사용하여 음정 표시	실험날짜		8/14	
	실험방법		· 4개의 다른 색깔의 테이프를 지판에 붙여 음정을 표시하였다.	
	효과 - 활용	전	· 현악기의 경우, 검지부터 1번 손가락으로 시작하므로 입문 학생들이 손가락 번호를 헛갈려 한다.	
		후	· 계명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도, 손가락 번호에 익숙하지 않는 학생들도 색깔별로 지칭하니 그룹 레슨의 입문과정 학생들도 왼손 짚기 연습을 별 어려움 없이 학습하게 되었다.	